

민족정체감의 개념화와 측정에 관한 고찰

이 순 형*

- I. 머리말
- II. 민족과 민족주의
- III. 민족정체감의 형성
- IV. 민족정체감 측정에 대한 방법적 논의
- V. 맺는말

I. 머리말

역사적으로 민족의 분단이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때로는 내분과 같은 민족집단의 내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분단이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강제 분할과 같은 압력에 의해서 분단이 이루어졌다. 내분에 의해서 분단된 경우든 외부 압력에 의해서 분단된 경우든간에 그 원인을 차치하고라도 민족 개개인의 삶은 분단이라는 환경변화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민족 분단을 경험해 온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다. 반세기라는 장기간 동안 이데올로기의 양극화에 따른 냉전체제는 우리의 분단 상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왔

다. 실제로 양분된 두 국가간 공식적 대화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심심치 않은 적대행위의 유발로 긴장이 고조되곤 했으므로 개인차원에서 비공식적 교류나 대화가 일체 허용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어, 풍습과 역사가 같은 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민족은 양극체제가 유지되어 온 긴 세월 동안 문화적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는 한 민족의 이질화를 가속시켜 왔다고 볼 수 있다.

근래 6공화국에 이르러, 미소 양대국의 대화가 빈번해지고, 냉전체제가 해빙무드를 맞으면서 중국과의 비공식적 교류가 전개되었다. 개방되지 않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중국에 있는 연변의 동포들과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이 접촉과정에서 피상적으로나마 한 민족이라는 동질적 혈연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세대가 살아온 사회체제가 다른 만큼,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아 온 사람들의 사고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두 체제 안에서 민족의 동질성

*서울대학교 소비자 행동학과 교수

이 얼마나 유지되어 왔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 질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시급히 연구해야 할 문제로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분단상황의 단절이 학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민족의 동질성을 연구해 온 바 없으며, 아직까지도 그러한 연구가 시도되지 못함은 안타까운 사실이다. 민족통일이라는 대명제에는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실제 민족에 대한 정체의식(正體意識)이나 사고가 동일한지는 연구된 적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번째 시도로서 서로의 사고 즉 서로의 인지체계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한 민족으로서 동일 체험이 전혀 없는 젊은 세대들이 민족 통일에 앞서서 한 민족이라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민족정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민족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볼 필요가 있다. 민족정체의식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족정체의식을 구체적인 사회심리 현상으로서 간주하여 과학적 분석대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과학적 분석대상이 되려면, 민족정체의식은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개념화되어 조작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의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시도로서 한민족(韓民族) 청소년의 민족에 대한 민족정체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개념체계를 구성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모색은 이론적으로도 정체감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학자들이 민족정체감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에, 독일 학자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곧 그들의 국

가가 가지고 있는 구성요인과 상황요인 때문으로 판단된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중요한 인식체제로 간주되지만, 혼합민족으로 구성되어 문화적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로서는 단일 민족정체감을 연구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분단국이었던 독일에서는 통일 이후 서독 국민과 동독 국민이 통일 후의 직업과 생활의 불확실성속에서 서로의 체제와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세삼스럽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족 정체감이 거론되고 있다. 민족정체감이라고는 하나, 엄밀히 말하면 통독후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해 가는 사람과 다시 동독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의 인지체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와 그들의 체제적응에 관심을 둔 것(서봉연, 1991)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분단국가(分斷國家)로 남아 있는 우리의 상황에 통독현상이 교훈적으로 간주되기는 하지만, 독일에서의 민족정체감 연구나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문화적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 국민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다르다. 비스마르크의 통일 이전부터 여러 군주국으로 구성되었었으며 인종적으로는 게르만민족을 비롯해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이후 오랜시간동안 단일 국가였으며, 단일 민족으로 유지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독일인보다 혈연의식이 강하고 이 혈연의식이 조상과 문벌, 즉 친족체제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져서, 독특한 친족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가족의 원형으로서, 종가를 중심으로 한 문중을 조사한 바(이순형, 1984, 1990)에 의하면, 친족의식은 한국인의 대인관계망을 인지하는 기초 단위가 되고 있으므로, 친족의식이

확대된 것이 민족개념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될 수 있다. 혈연에 대한 애착과 친족의식이 독일의 민족정체감과 한국인의 민족정체감의 차이로서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민족의 민족정체감 연구는 독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질적으로 민족정체감을 달리 정의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민족정체감에 대한 시발연구(始發研究)로서 이론적으로는 한민족의 인지체계에서 민족정체감을 구성하는 개념을 밝히고, 그를 통해 민족정체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독자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민족 정체감을 조사 및 비교할 수 있는 민족정체감의식의 개념화를 시도해 보려 한다.

II. 민족과 민족주의

이 장은 민족, 민족주의의 개념적 틀에 입각해서 민족정체감을 정의하고 그 개념틀을 통해서 민족정체감의식의 형성을 살펴본다.

1. 민족과 민족주의의 개념

1) 민족

민족은 어원상 혈통이나 출생에 해당되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의미 자체가 생물학적인 인종의 혈통을 의미하였으나, 근래에는 인종의 뜻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민족은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집단으로서 단순히 생물학적 인종이나 자연 지리에 의해서 구분되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나 역사에서 그 특징, 성격

과 개성을 찾는다. 이러한 것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것은 언어이다. 언어야말로 신문과 민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특정 국가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며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또한 언어는 한 민족의 현세대와 전세대와의 연대성과 지속성을 나타내며 명백한 유대를 이룬다.

언어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역사적 전통이다. 그것은 씨족, 부족이나 종족 집단들, 즉 실제든 가상이든지간에 공통된 혈통이나 거주 지역에 의해 결합된 인간의 집단과는 다르다. 이와 같은 종족들은 역사의 초기부터 존재해 왔으나, 민족을 이루지는 않았다(Kohn, 1944). 역사적 전통이란 기억되고 있거나 추측되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 축적된 것으로서 이는 곧 언어집단에 따라 내용과 강조점이 달라지는 경험의 축적을 의미한다.

역사적 전통과 배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한 민족의 종교적 과거가 있다. 종교적 전통은 특정 신앙을 마련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특수한 사회적 관습, 인습 및 습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민족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둘째, 영토의 과거가 있는데 조상들의 삶과 뼈가 묻혀 있는 땅에 대한 과거, 셋째 한 민족의 정치적 과거, 넷째 전투상의 과거, 다섯째 산업상 그리고 경제상의 과거, 여섯째 문화적 과거(헤이즈, 1960)를 지니고 있다.

2) 민족주의

민족의 실재와 역사성은 그 자체로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자각에 의한 의지에 의해서만 의미를 지닌다고 Kohn (1944)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족학적 자료’로서의 민족, 즉 역사 속에 ‘실용적’이고 우연적 요소로서의 민족은 무척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오직 국민적 의식의 각성을 통해서만이 그러한 ‘민족’들은 역사에서 의지를 가진 ‘절대적’ 요소가 되었던 것이다. … …근대에 와서 민족을 구성하고 형성하는 것은 핏줄의 외침이 아니라 이념의 힘인 것이다(백낙청 엮음,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1981, 36).

민족주의는 집단의식으로서 하나의 심리적 현상임과 동시에 사회적 현상이다. 민족주의는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그 구성원 전원에게 스며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신상태이다. 민족주의는 민족국가를 이상적 정치조직의 형태로 인정하고 민족을 모든 창조적인 문화적 에너지와 경제적 복지의 대상이며 또한 그 원천으로 간주한다. 그뿐 아니라, 개인의 최고의 충성심은 그 민족에 바쳐져야 하는데, 이는 그 자신의 삶이 민족의 안녕에 뿌리박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만 영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의되는 민족주의는 내적으로는 상호 일체감을 형성하고 외적으로는 상호 배타성을 형성하는 이중의 얼굴(Kohn, 1944)을 가지고 있다. 즉, 민족구성원들 사이에는 생생한 공감으로 연결되며, 민족구성원들은 항구적 공통 이익이 있다는 생각에 이끌릴 뿐 아니라, 그러한 공감은 헌신, 심지어 자기 희생감으로 인도되기도 한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민족 외적으로는 자민족만을 생각하는 배타성을 가지며 타민족에 대해서는 완전한 무관심 내지는 심한 반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감정에 인도되기도 한다.

특히 강대 민족내 민족주의에 의한 배타적 감정은 약소 민족에게 부당한 처사로 작용될

수 있다. 때로 논리적 타당성과 합리성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내세우는 강대국의 발상이, 약소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간섭과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음은 민족간의 이러한 상호배타성에 근거한다.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은 근대 민족주의의 최고 전도사로서 최초의 대중적 독재자(Carr, 1945)였다. 나폴레옹 이전의 국제관계는 군주나 집권 소수자의 개인적 이해나 야심에 의해서 좌우되다가, 나폴레옹 이후에는 민족 내지는 국민의 총체적 이해관계나 야심에 의해서 좌우되기에 이른다. 또한 19C 말엽부터 시작된 민족의 사회화를 통해서 국가 정책이 민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데 민족구성원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이러한 민족주의 사회화가 경제정책의 민족주의화를 형성했으며, 각 민족에 지리상의 영토확장을 피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민족주의화에 따르는 민족간 갈등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유발(Carr, 1945)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민족주의는 민족간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력의 이동현상에 역동적 동인으로서 작용해 왔으며 민족간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민족의 동일성이나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가 어째서 정치학이나 정치역사학에서만 이루어졌는가는 자명해진다.

민족주의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정치적 민족주의로 나뉠 수 있다. 문화적 민족주의는 정치적 민족주의와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정치적 민족주의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유대인을 비롯하여 여러 민족들은 상당히 오랜 시일에 걸쳐 정치적 통일과 독립상태가 아니면서도 민족으로서 존재해 왔으며 민족문화를 유지했음은 정치적 민족주의가 없이도 문화적 민족

주의가 존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민족은 국가나 국민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 이 점에서 명백해진다. 물론 문화적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정치적 민족주의를 환기시켜 민족은 그 자신의 독립국가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유발했으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시도되기도 했다.

2. 민족정체 의식의 측정

민족주의를 개인의 내적 심리 차원에서 개념화하는 시도는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첫째로, 사회정치 현상에 역동적으로 명백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알려진 힘을 민족구성원들의 집단 의식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둘째로, 집단의를 민족집단이 가지는 막연하고 모호한 심리적 현상으로서 파악하는 단계가 아니라, 민족구성원 개인 차원에서의 측정가능한 심리적 특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민족구성원 각각의 힘을 단합시키고 그 힘이 민족의 앞날을 결정하는데 역동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집단의식인 민족정체감을 구체적이고도 측정 가능하며 분류 가능한 심리적 분석 대상으로 접근하는 시도는 독창적이면서도 탐색적인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민족정체감을 분석대상으로 다루려고 할 때 연구자가 당면하는 문제는 개념 사용의 혼란이다. 민족정체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와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없이, 연구자에 따라서 민족정체감이 민족주의와 혼용되고 민족동일성과도 혼용되고 있어서 연구자마다 개념상의 정의가 다르고 관점을 달리하고 있다. 차기벽교수는 민족정체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제시한 용어는 민족정체감과 같은 의

미로써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의 정의에 귀 기울여 본다. 이(민족정체감)는 민족생존의 전 기간을 통해서 존속하는 자기 동일성의 인식 또는 타인과 상이한 특이한 공동체적 자기 인식(차기벽, 1978, 141)이다.

III. 민족정체 의식의 형성

사회현상인 민족정체 의식을 심리학자들은 자아정체 의식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는 하위정체감으로서 민족정체감이란 심리학적 용어를 사용한다.

1. 민족정체감의 정의

정체감이란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계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동시에 자신의 자아 통합 방법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Erikson, 1956)이라고 에릭슨이 최초로 정의했다. 그 후 정체감에 대해 연구해 온 학자들(Baumeister, 1986; Triandis, 1989)은 정체감을 3개의 양상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즉, 자아(自我), 공공(公共) 그리고 집단(集團)에 대한 정체감이 그것이다. 자아정체감은 Erikson(1950, 1956)이 개인 자신의 정체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한 이래 여러 학자들(Dignan, 1973; Marcia, 1980)에게서 논의되어 왔다. 그 중에도 자아정체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정체감 척도를 구성한 사람은 Dignan이다. Dignan은 자아정체감을 타인과 달리 고유한 자아감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자아정체감 중에 공공 정체감 *public identity* 이나 집단 정체감 *group identity*은 1980년대 이

후에 거론되기 시작했다(Greenwald & Pratkanis, 1984). 공공 정체감은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타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와 관련된다. 즉, 개인의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는 가(Triandis, 1989)이다. 또한 집단 정체감은 개인이 그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체감을 의미한다. 집단 정체감의 하나로 민족 정체감이 정의되어질 수 있다. 즉, 민족정체감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집단의 정체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지 체계이다.

2. 민족정체감의 개념구성

민족정체감을 다룬 극소수의 연구 중에서도 민족정체감은 그 자체로서 개념이 정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늘 자아정체감을 구성하는 사회 정체감의 일부로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은 민족정체감이 제대로 충분히 논의된 선행연구가 국내는 말할 것도 없으며 국외에서도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말해준다.

자아정체감을 여러 개의 심리적 특성으로 이루어진 총체적 개념(Dignan, 1965)이다. 총체적 자아를 구성하는 하위개념은 동일성(同一性), 고유성(固有性), 자기수용감(自己受容感), 의미있는 타자로부터의 역할기대(役割期待), 지속성(持續性), 목적지향성(目的指向性)과 대인관계(對人關係)와 관련된 7개의 심리 특성으로 규정된다.

개인의 자아정체감 중의 한 부분인 사회적 정체감에는 민족정체감을 비롯해 인종정체감(人種正體感)이나 성정체감(性正體感)이 포함된다. 민족정체감에는 한 개인이 인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지를 내포하므로 인종정체감은 민족정체감의 한 부분 개념을 이룬다.

인종정체는 집단구성원의 인종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자기 동일시, 소속감, 집단구성원에 대한 태도(Phinney, 1990)로 구성된다. 자기 동일시는 일종의 자기 명명화를 의미한다. 자기 동일시는 부모의 인종을 자기의 인종으로 동일시하는가로 측정되는데, 이 과정은 비록 간단하지만 다양한 인종 가운데 특정 인종으로 자기를 동일시하는 인종정체는 청소년의 자아 개념을 이루는 중요 개념(Aboud, 1987; Cross, 1978)이 된다.

한 개인이 자기를 특정 인종으로 명명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 인종에 심리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는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인종정체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인종에 대한 명명뿐만 아니라 그 집단내의 소속감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이 그 인종집단에 유대감을 느끼는지(Driedger, 1976), 자신의 운명과 미래가 그 집단에 달려 있다고 느끼는지(Der-Karabetian, 1980), 그 집단에 어쩔 수 없이 애착을 느끼는지(Parham & Helms, 1981, 1985)에 대해서 조사한 바를 근거로 하여 개인의 인종소속감이 평가되고 있다.

개인이 그 인종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집단 사람들에게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또한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이 명명한 인종집단에 대해서 만족감과 자부심과 같은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양가감정, 불만, 열등감과 같은 부정적 태도를 지닐 수도 있다. 자기 인종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타 인종의 문화에 대한 선망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미국내 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종정체감

이 독자적으로 형성되어 긍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청소년이 있는가하면, 백인에 대한 열등감과 부끄를 비롯한 흑인에 대한 양가 감정 등 부정적 인종정체를 형성해 성역할 종교 및 정치현상에서의 정체에 부정적으로 적응하는 청소년이 있다(Phinney and Alipuria, 1990)는 연구보고가 이를 입증해 준다.

민족은 인종을 내포하는 큰 개념 범주로서 민족정체감은 혈연 집단인 인종에 대한 정체를 포함한다. 또한, 민족정체감은 특정민족에의 소속감, 민족구성원에 대한 호오(好惡)를 포함하며,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규범, 관습, 언어 및 역사 등의 문화적 고유성에 대한 인지와 수용감을 내포한다.

이러한 정체감의 개념 구성의 토대 위에서 민족정체감의 개념을 구성해야하는 것은 정체감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심리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특정 민족의 민족정체감을 규정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정체감을 논의할 때에는 심리적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연하면 정체감의 심리적 특성은 민족간에 보편적이라 생각되지만, 각각의 민족은 역사, 인종과 친족문화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서 그들의 민족정체감의 역사문화적 특성은 달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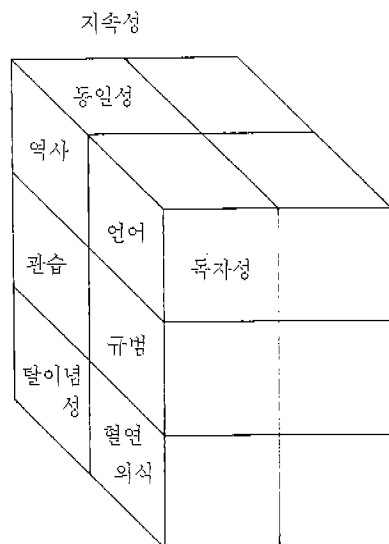
그 가운데에서도 혈연의식(이광규, 1975)과 한국인의 친족 관계로의 심리적 회귀 의식은 한국민의 의식 저변에 깊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민족정체감에는 한 조상으로부터 유래된 혈연집단이라는 친족의식이 민족정체의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민족정체감은 정체감의 보편적 특성

인 심리적 동일성, 독자성, 지속성에 첨가해서 민족의 현존에 영향을 주었을 역사, 관습, 규범, 탈이념성과 혈연의식에 대한 정체의식이 포함되어 민족정체감 개념이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이념성은 두 이념체계의 정치적 변화나 그의 영향에 관계없다는 항상성을 인지하는바, 민족정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탈이념적 민족정체감은 분단상황을 이념적으로 극복한 높은 수준의 정체감으로 평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해서 민족정체감은 정체감을 구성하는 보편적 특성 차원인 동일성, 독자성, 연속성과 사회문화적 내용인 역사, 언어, 관습, 규범, 탈이념화, 혈연의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민족 정체감 개념은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3. 민족정체감의 특성

민족정체감은 자아를 비롯한 다른 대상에 대한 정체감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와 달리 충성심과 같은 정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민족정체감의 인지적 특성은 동일성, 독자성과 지속성으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의 민족 구성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동일성과, 그 동일성이 시간의 경과에도 상관없이 유지되는 연속성을 아는 것임과 동시에 타민족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독자성을 인지하는 것은 민족정체감의 인지적 차원이다.

사회현상이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실체로서 인지되는가는 Piaget(1965)와 같은 심리학자들의 관심일 뿐 아니라, 철학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모든 실체와 사상(事像)은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하기 마련이며 이 변화는 시간의 흐름과 관련되어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피상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이나 사회현상이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면에서 본질적 동일성을 인지하는 것은 지각의 피상성을 극복한 경우이나 가능한 것이다. 연속성도 동일성과 마찬가지로 인지되는 속성이다. 연속성은 대상이나 사회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동일한 실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또한 민족정체감의 인지적 특성은 보편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동일성이나 연속성이 보편적 인지 특성인데 비해서 독자성은 각각의 문화집단이 가지는 차별적 인지 특성을 의미한다. 독자성은 개별 민족 문화의 존재에 의의를 부여한다.

한편, 민족정체감은 단지 인지적 차원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애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정서를 내포하고 있다. 조국애 또는 향토애는 헤르만 헷세의 페터카멘진트와 같은 문학작품이나, 스페타나의 교향시와 같은 예술작품에서 표현되어지는 정서이다. 민

족정체감의 향토애는 헤이즈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사랑이므로 애호(愛好), 공감(共感), 충절(忠節), 충성(忠誠)을 포함하는 하나의 감정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인 동시에 군거성(群居性)의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지주로서 이런 저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조국애는 몇 종류의 충성을 한 데 모은 것이다. 그것은 익숙한 장소에 대한 <고양이>의 충성과 낯익은 사람에 대한 <개>의 충성, 그리고 친숙한 이념과 관습에 대한 인간특유의 충성을 포함하고 있다. (차기벽 역, 헤이즈, 민족주의: 이념과 역사. 1981: 21)

역사학자인 헤이즈가 주장하는 조국애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국애를 조작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조국애는 국토, 언어, 관습을 받아드리고, 이웃사람들을 받아드린다는 점에서 수용감 또는 친밀감 등을 포함한 소속감이라는 심리적 용어로 대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족정체감은 인지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의 특성을 띠며 이러한 점이 자아정체감과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민족정체감의 획득

이제까지 어느 개인의 민족정체감의 획득과 발달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단지 개인의 자아정체감의 발달을 다룬 연구(박아청, 1984; 서봉연, 1979; Erikson, 1956; Marcia, 1980)만이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민족정체감의 발달을 집단과 개인의 역동적 상호관계와 정체감의 획득 및 발달로 살펴 보고자 한다.

1) 집단과 개인의 관계

집단은 그에 속하는 개개인의 합 이상의 총

체적 단일체(總體的 單一體)로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집단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Shaw, 1981: 8)을 가지고 있다.

집단은 구성원의 자아정체감과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Worchel, Cooper & Goethals, 1989)고 하여 어떤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아정체감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한다. 또한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적 태도에도 차이(Hymas, 1986)를 나타낸다. 같은 집단내에도 신참과 고참 사이에는 서로 지각하는 바가 달라서(Moreland, 1985), 동일 집단내에도 지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집단 소속과 대인 지각간에도 상관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그 집단에 속한 사람은 옳고 착하며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르다는 생각(Hinkle & Schopler, 1986)과 속해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보다는 높은 것(White, 1966), 또한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집단내 사람들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보다는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을 더 잘 기억해 둔다(Howard & Rothbart, 1980)는 사실 등이 이러한 집단중심적 지각을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국가간 갈등이 생기면 국가는 적을 악마와 같은 영상으로 만들어 간다. 즉 히틀러가 독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유테인을 악한으로 보거나, 미국이 전쟁의 상대인 후세인을 악한으로 그리고 있는 것은 똑같은 이치이다. 1985년 미국과 소련의 정상회담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이므로 군축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소련은 팽

창주의를 지향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집단으로서 간주하고 소련의 군축안은 함정을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다(Worchel et al., 1989: p. 613).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다양성을 잘 지각하는 반면에 속해 있지 않은 집단의 구성원은 모두 유사한 특성으로 지각한다(Jones, Wood & Quattrone, 1981)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특정 집단내의 노출 빈도(Quattrone, 1986)로 설명되는데, 집단내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보았으나 외부 집단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각의 편향성이 빚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상에서 집단과 그에 속해 있는 개인의 사고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 보았거니와, 민족도 하나의 집단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지 구체적인 특성을 지니는 소규모의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 다를 뿐이나, 민족 집단으로서의 제 특성을 지니고 있다.

2) 개인의 정체감 획득

잘 알려져 있다시피, Erikson은 개인의 자아 발달 8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그 모델을 보면 청년기인 5단계에서 개인은 정체감 형성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청년기에 누구나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고 정체감을 형성하거나, 정체감형성이 유예(猶豫)되거나, 정체감의 혼미(昏迷)상태에 있거나 정체감이 유실(流失)된 상태에 있는 등 청소년의 정체감 형성상태는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정체감을 형성한 개인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Marcia, 1980), 가치관이 뚜렷하고, 자기 성찰적이며, 자존감이 높고 미래에 대해

전망을 할 수 있는 인성특성(서봉연, 1979; Podd, 1980)을 보인다. 이와 반대로 정체감 유실은 말할 것도 없고, 혼미 상태에 있는 청소년은 불안 수준이 높고, 권위자에 추종하며, 자기존중감이 낮으며, 본인이나 타인에 대하여 장래 전망을 하기가 어렵고 과업을 성취하는 수준이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민족정체감의 발달에 관해서 국내에서는 아직 어떤 연구도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족 정체감의 발달에 대해서 직접 논의하기 어렵다.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한 연구가 70년대에 시도되었었으며(Tzuriel & Klein, 1977), 최근에는 통일 독일에서 자아 적응과 관련지워서 정체감 형성을 논의하고 있다. 동양과 서양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아정체감과 자민족 중심주의를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이 발달된 사람들은 유대 민족의 자민족 중심주의 의식은 발달되지 않은 반면에 인종에 대한 집단정체감은 발달되었다(Tzuriel & Klein, 1977)고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수 세기 이상 오랫동안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족에 대한 정체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발달 양상과 민족 정체감의 발달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다.

IV. 민족정체감의식 측정에 대한 방법적 논의

민족정체감을 연구하는 것은 개인이 속해 있는 민족집단의 역사, 언어, 관습, 규범, 이념 등의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측정해야 하는 과제이다. 민족집

단의 역사, 언어, 관습, 규범 등에 대한 인지 조사는 제한된 조사설문으로 이루어지기에는 광범위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더구나, 역사, 언어, 관습, 규범에 대한 인지가 단순 인지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심리적 차원 중 인지적 특성인 동일성, 독자성, 연속성으로 세분해서 다면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므로 연구의 어려움이 더해진다. 그 뿐 아니라, 민족정체감은 인지적 특성이외에 정의적 특성인 소속감을 포함하여 다면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측정되어야 하므로 설문 과제를 구성하는 일은 탐색적 작업인 동시에 창의적 과업이다.

다면적 개념을 측정하는 일은 논리적 명료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개념간의 관계에서의 평형 유지와 더불어, 그 평형이 설문의 구성에도 유지될 것을 요구한다. 평형 유지란 말할 것도 없이 설문 문항의 수뿐 아니라 문항의 내용을 기술하는 언어 표현에서의 평형까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구체적으로 문항을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갔을 때, 연구자는 여러가지 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우선, 본 논문에서 제안된 민족정체감의식의 다면적 개념모델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다면 모델에 입각해 문항을 구성하려 할 때에 연구자는 한 문장 안에 민족의 사회문화적 항목의 인지적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구분해서 달아야 한다는 데 곤란을 겪을 것이다. 실제로 인지적 특성인 동일성과 연속성은 문장 표현에는 차이를 둘 수 있겠으나, 내용상에는 명확한 차별성을 두기 어렵다. 또한 관습과 규범이 의미상으로는 명확하게 다르지만, 실제 문항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체적 사상이나 의미로 형상화하는 데에는 곤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민족정체감을 연구하는 목적이 민족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이 인지하는가에 있다면, 개인의 인지내용을 단선적으로 측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연구목적이 인지내용에 그치지 않고 특정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즉 미국, 연변이나 중앙아시아지역 등에 이민 내지는 이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갈등상황에서의 의사 결정과 행동을 밝히는 데 있다면, 개인의 인지내용을 단순히 측정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설문 자체를 갈등상황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국내 청소년 뿐 아니라 이민 청소년들의 민족정체감을 비교하기 원한다면, 민족정체감의 인지적 또는 정의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기위하여 문화적 보편성을 띤 내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에게든 지극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문항을 구성하는 작업에 들어가서 이 원칙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려 할 때에 연구자는 공통 생활 경험의 결핍에서 오는 제한성으로 인하여 문항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제한된 공유경험으로 인한 문제만이 실제 연구에 곤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 공유되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경험을 전혀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의미해석상의 문제도 민족정체감 연구에 심각한 어려움이 될 것이다.

V. 맺는 말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강대국간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소련내 많은 국가들이 민족을 내세워 독립을 선포하는 등 민족정체 의식이 세산 고취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반세기 동안 분단을 경험해 왔으며 그 분단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의 이질화가 사회 여러 부문에서 상당히 진행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직도 냉전상태로 유발되고 고착된 분단상황에 머물러 있던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냉전 해빙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냉전체제 하에서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민족의 이질화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리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거론하는 사태를 맞게 되었다. 급변하는 시국 상황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학술연구를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 하에서 이러한 상황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시도의 하나로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민족정체 의식에 대한 파라다임을 모색하게 되었다.

국내에 말할 것도 없고 국외에서도 민족정체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가 시도되었다. 2차 대전 직후 전쟁 발발이 민족의식의 배타성에 있었다는 진단과 더불어 1940, 50년대 역사, 정치학에는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가 붐을 이루었는데, 본 연구는 헤이즈(C. Hayes), 카아(E. H. Carr)를 비롯한 역사학과 정치학자들에 의한 민족주의 연구로부터 민족과 민족의식에 대한 개념을 이끌어 냈다. 민족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으로서 언어, 관습, 규범, 역사를 추출하였는 바, 이 하위 개념을 자아정체와 관련지워 민족집단에 대한 정체의를 명료하고 측정이 가능한 문항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앞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민족집단에 대한 개인의 정체의식은 자아정체의 한 부분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 개념, 즉 민족정체감으로서 이는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을 포함한다. 인지적 특성은 민족정체에 대한 동일성, 연속성과 독자성을 인지하는가를 의미하며, 정의적 특성은 조국애 또는 향토애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특정 민족에 대한 소속감, 그 집단 사람들에 대한 친밀감과 애착 등의 정서를 말한다. 민족정체의식이 자아정체 연구와 다른 점은 사회 인지 대상인 민족에 대한 인지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친애감의 형성과 발달정도를 더불어 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족정체감의 이러한 특성에 근거해서 민족정체감을 측정하는 연구가 지니는 연구 방법상

의 어려움이 지적될 수 있다. 어떤 문항이든 민족정체의식의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도록 한 문항은 특정 민족집단의 거주이동 등 민족구성원의 역사 문화적 경험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 민족의 고유한 역사, 관습, 언어, 규범 등의 특수한 성격을 분리해내서 측정해야 한다는 점이 또한 극복해야 할 연구방법상의 과제이다. 그뿐 아니라, 민족구성원의 거주지 이동 등으로 인한 역사문화적 생활체험이 다른 데서 비롯된 공통생활의 제한으로 인한 민족구성원간 상호이해의 부족뿐만 아니라, 동일한 체험을 전혀 다른 맥락에서 해석하는 인지체계의 차이도 극복되어야 할 연구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박 아청(1984), 아이덴티티의 탐색, 정민사.
- 백낙청 엮음(1982),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서 봉연 (1979), 한국과 서독 청소년의 아이덴티티 발달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연구, 제2집.
- 서봉연(1991), 통독과정에 있어서의 동서독 청소년의 정체감변화에 관한 비교 연구, 미발표 논문.
- 이 광규(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 이 순형(1984), 한국 아동의 친척명 인지, 한국아동학회지 5권, pp. 21-45.
- _____(1989), 종가의 종손, 종부의 사회화 과정 고찰: 종손, 종부의 양육사를 중심으로, 생활과학 연구 15, pp. 39-47.
- 차기벽(1978),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 차기벽 역(1981), 민족주의: 이념과 역사, 서울: 한길사.
- Adams, G., Bennion, L., & Huh, K.(1987).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 reference manual. Logan: Utah State University Laborator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 Baumeister, R.F.(1986), *Identity: Cultural change and struggle for self*, N.Y.: Oxford University Press.
- Caltabiano, N.(1984), Perceived differences in ethnic behavior: A pilot study of Italo-Australian Canberra residents, *Psychological Reports*, 55, pp. 867-873.

- Carr, E.H.(1945), *Nationalism and after*, London: Macmillan.
- Dignan, M.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Youth and Social Psychology*, 1, 476-483.
- _____ (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vol.1, No.5, 476-483.
- Dreher, R. & Oerter, R.(1986), Childrens' and adolescents' conception of adulthood, The changing view of a crucial developmental task, In R.K. Silbereisen, K. Eyferth & G. Rudinger (Eds.), *Development as Action in Context*. (pp.109-120). Berlin: Springer.
- Erikson, E.H.(1950), *Childhood and Society*, N. Y • Norton.
- _____ (1956), The problem of age identity. *Journal of American Psychologist*, Assoc, 4, 56-122.
- Greenwald, A.G. & Pratkanis, A.R.(1984), The Self. In R.S. Wyer & T.K.Srull (Eds.), *Handbook of Social Cognition*(Vol.3, pp. 129-178). Hillsdale, NJ: Erlbaum.
- Haward, J.W. & Rothbart, M.(1980), Social Categorization and memory for in-group and out-group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301-310.
- Hayes, C.J.H.(1959), *Nationalism*.
- Hinkle, S. & Schopler, J.(1986), Bias in the evaluation of in-group and out-group performance. In S. Worchel &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cago: Nelson-Hall.
- Hogg, M., Abrams, D., & Patel, Y.(1987), Ethnic identity, self-esteem,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of Indian and Anglo-Saxon British adolescents,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3, 487-508.
- Hymes, R.W.(1986), Political attitudes as social categories. A new look at selective mem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233-241.
- Jones, E.E., Wood, G.C. & Quattrone, G.A. (1981), Perceived variability of personal characteristics in in-groups and out-groups: The role of knowledge and 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523-528.
- Josselson, R.(1980), Ego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Joseph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John Wiley & Sons.
- Kohn, H.(1944), *The idea of nationalism: A study in its origins and background*. N.Y.: Macmillan.
- Marcia, J.E.(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oseph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 John Wiley & Sons.
- McGrath, J.(1984), *Groups: Interaction and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oreland, R.(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assimilation of 'new' group memb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173-1190.

- Myers, D.G.(1982), Polarizing effects of social interaction. In H. Brandstatter, J.H. Davis & G.Stocker-Kreichgauer (Eds.), *Group Decision Process*. London: Academic Press.
- Oerter, R.(1991), Subject's conception of human nature: A cross cultural comparison. In press.
- Phinney, J.(1989), Stages of ethnic identity in minority group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ts*, 9, 34-49.
- Phinney, J.(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Vol.108, No.3, 499-514.
- Podd, M.H.(1980), Ego identity status formal operations, and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87-99.
- Quattrone, G.A. (1986), On the perception of a group's variability. In S.Worchel & W.G.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25-48). Chicago: Nelson-Hall.
- Shaw, M.(1981), *Group dynamics: The psychology of small group behavior*. (3rd ed.). N.Y: McGraw-Hill.
- Simic, A.(1987), Ethnicity as a career for the elderly: The Serbian- American cas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6, 113-126.
- Singh, V.(1977), Som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roblems in the study of ethnic identi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Annals*, 285, 32-42.
- Tajfel, H.(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ng-Toomey, S.(1981), Ethnic identity and close friendship in Chinese-America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5, 383-406.
- Triandis, H.C.(1989), The self and the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 Tzuriel, D. and Klein, M.M.(1977), Egoidentity: Effects of ethnocentrism, ethnic identification, and cognitive complexity in Israeli, Oriental, and Western ethnic groups, *Psychological Reports*, 40, (pp.1099-1110).
- Vogel, S.R.(1979), The currents comments symposium: Applications of androgyny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psychotherap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 255-258.
- White, R.K.(1966), Misperception as a cause of two world wars, *Journal of Social Issues*, 22(3), 1-9.
- Worchel, S., Cooper, J., & Goethals, G.R. (1989), *Understanding Social Psycholog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Zander, A.(1982), *Making Groups Effective*, San Francisco: Jossey-Bass.